

서문 & 1 장

A. 주제(Thesis).

-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개인적인 동시에 정치적이다. 역사의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.
- 우리가 "정상"이라고 간주하는 것, "문명의 정상"(normalcy of civilization)으로 당연시되는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.

B. 문제점(Problems).

- 예수 탄생 이야기(들)은 세상에서 가장 널리 지켜지는 크리스마스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임에도,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실제 복음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.
 -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신원은? 몇 사람인가?
 - 예수가 태어난 곳은?
- 예수 탄생 이야기들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. "분명히 말하자면, 미국은 오늘날 제국으로서 매우 막강하며 위험한 위치에 있다.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,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들은 속속들이 반(反) 제국주의적이다." (p. 11)
 -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(황제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),
 - 예수가 구세주이며 (황제는 구세주가 아니다),
 - 예수가 주님이며 (황제는 주님이 아니다),
 - 예수가 땅위의 평화의 길이다 (황제는 평화의 길이 아니다).

C. 논점(Argumentation)

- 방법론적으로 예수의 탄생 이야기들이 사실적인지(factual), 비사실적인지(nonfactual)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것이 전하는 의미에 관심을 둔다. 당시에 무엇을 뜻했으며,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나?
- 예수의 탄생이야기는 시대적으로 성서 집필 후반기에 등장. 바울서신(50년대)이나 마가복음(70년)에는 기록이 없다.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개의 탄생 이야기들이 서로 다르다.

	마태복음 1-2 장	누가복음 1-2 장
예수의 족보	마 1:1-17 (탄생 이야기 전에 등장) 아브라함에서 시작 => 다윗=>예수	눅 3:23-38 (탄생이야기 후에 등장) 예수로부터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감
주인공	요셉 (마리아는 계시도, 말도 없다) 요셉이 예수의 이름을 명명(1:21, 25)	마리아 마리아가 예수의 이름을 명명(1:31; 2:27)
무대 배경	동방박사(?): μάγοι mages/magician, wise men 헤롯 왕궁	포대기(배내옷), 마구간, 구유, 목자들, 천사들의 노래
예수의 출생	베들레헴 (본래 고향) 마굿간이 아닌 집으로 동방박사가 방문. 황금, 유향, 몰약을 예물로 드림. 세 사람(?)—언급이 없다.	갈릴리 나사렛. 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 방문
세례 요한	----	세례 요한의 출생 (사가라, 엘리사벳)
신학적 의도	헤롯(로마 제국)을 피해 이집트로,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=> 출애굽 전승을 상기 (제국주의의 archetyp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인들 역할 (엘리사벳, 마리아, 안나) • 찬가 (사가라, 마리아, 시므온, 천사들) • 호구조사. 역사적 기록. 마태복음처럼 로마제국과의 알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.

- 두 이야기의 공통점: ①예수의 부모 이름, ②예수는 헤롯 대왕 통치 말년에 베들레헴에서 출생.
- 두 이야기를 "조화"시켜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두 복음서를 무시하는 태도. (예를 들어,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린다?)

D. 평가(Critique)

- 마태복음, 누가복음 두 개의 예수 탄생 이야기들을 비교 분석한 것은 각각의 의도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된다.
- 각각의 신학적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했으면 좋았겠다.

생각해 보기

1. 크리스마스 하면, 생각나는 것은?
2. 이 책을 읽고,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뀔까? 어떻게? (아니면, 왜?)